Robert Vannoy, **성경적 예언의 기초, 강의** 16

예언의 변증적 가치, 오바댜 서론

X. 예언의 변증적 가치

지난주에 로마숫자 X를 줬습니다. 제가 그것을 나눠준 의도는 그것을 통과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훑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고 질문이 있으면 더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유인물 전체를 읽지 않고 몇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A. 성경의 예언은 변증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A. "성경의 예언이 변증적 가치가 있는가? 사전 고려사항"

역사적으로 예언적 예언에 변증적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진실성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변증적 도구입니다. 수세기 전에 주어진 예언을 볼 수 있고 훨씬 후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성경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주장하기 위한 좋은 변증 도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1. Aalders: 작은 가치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진술은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의 가치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부정적으로 대답할 복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주의 세계를 벗어나면 가치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설명을 위해 내가 일했던 암스테르담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네덜란드 학자 GC Aalders를 사용합니다. 그가 쓴 책은 *이스라엘의 거짓 예언자* 라고 불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 변증적 가치 문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는 예언 성취가 긍정적인 방식 으로 사용된 것과 같은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에 주목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는 개요 1페이지에 1-5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 모두를 검토하지는 않겠지만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Aalders는 성경의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예언의 성취에 호소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심각한 반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반대 의견을 보면 반대 의견은 논쟁에 대한 사과적 가치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그의 반대 목록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ㅏ. 이행에 대한 분쟁

첫 번째는 "이행에 대한 분쟁"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그의 저서 *The Prophets and Prophecy in Israel* *에서 Abraham Keunen을 인용* 하고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그는 Keunen이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근거하여 변증적인 논쟁을 뒤집었고 성취된 예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 연애 및 주관적 요인에 대한 분쟁

둘째, "예언과 그 성취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연대와 주관적 요소에 대한 논쟁". 즉, 다니엘과 이사야서 둘째 부분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주장하는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미 등장한 기원전 165년경에 익명의 사람이 쓴 것입니까?

그는 이행 논거가 실제로 증거 가치를 가지려면 다음 조건을 준수 해야 한다고 말하는 Davidson이라는 사람을 인용했습니다 . *둘째, 명확* 하고 *가시적인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건 자체의 본질은* 예측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추정 가능한 이성의 노력 으로* 도 예견할 수 없거나 *확률* 이나 *경험* 에서 *파생된 계산* 원칙에 따라 추론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 이제 그 진술에서 이탤릭체로 된 모든 단어는 Aalders

가 주관적 판단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알려진 공포와 같은 것, 사건의 본질은 이성의 노력으로 예견될 수 없고, 추론에 의해 보거나 생성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Aalders는 이러한 주관적인 가치 판단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결론에서 다를 것이 분명하므로 실제로 설득력 있는 진실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그는 그 반대도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Keunen 이 시도한 것처럼 그녀가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예언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증거도 만들 수 없습니다. 즉, 주관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반대입니다.

씨. 상징적 언어는 사과적 가치를 무효화한다

세 번째는 “상징적 언어는 사과적 가치를 무효화한다.” 처음부터 Aalders는 무천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왕국 예언을 교회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단에서 상징적이고 변증적인 가치 아래 몇 줄 아래에서 그는 이것이 변증 도구로서 예언과 성취에 호소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Aalders는 Keith와 같은 사람들의 문자 그대로의 접근 방식이 많은 예언의 상징적

특성을 정의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새 언약의 영적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 예언이 종종 예루살렘, 시온, 성전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이 Aalders의 견해입니다.

이사야 2장의 구절을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도래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죄 많고 파괴적인 방향을 상징합니다. 그는 일련의 바빌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왕국의 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Keith와 같이 좀 더 문자 그대로의 해석 방법을 채택하는 사람이 칠리스트 오류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볼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칠리스트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칠리아스트는 천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될 이곳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미래 천년 통치에 대해 말하는 이 예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천년적 종말론입니다 .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을 한다면, 당신은 전천년설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Aalders와 같은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그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 세부 사항까지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에 대해 다른 방식의 성취를 제안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이 예언들의 상세한 문자적 성취도 기대해야 합니다. Aalders에 따르면 예언의

문자적 성취에 호소하는 것은 변증론을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영적 성취를 위해 문자 그대로의 해석 방법을 포기하면 무기를 잃게 됩니다. 왜? 영적 성취는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예언과 성취를 변증의 도구로 삼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려 하면 변증 논증의 힘을 깎아먹는다.

디. 관찰: 무천년설주의자 – 전제적 변증론, 전천년설론자 – 증거론자

나는 몇 년 전에 이것을 읽은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으며 무언가가 나에게 떠 올랐지 만 전에는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복음주의 해석가를 살펴보면 무천년주의 해석가는 일반적으로 변증학에서 전제주의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보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언과 성취를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전천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변증론에서 전제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 증거주의자이며 이것이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증적 체계와 종말론적 체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반영할 때 꽤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밀레니 얼주의자 들은 또한 변증론적 전제주의자들이 될 것이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변증론자들이 증거주의자들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외가 있다고 확신하지만 일반적으로 Aalders와 확실히 일치하며 그는 그것을 지적합니다.

이자형. 알더스 결론

이 다음 진술에 유의하십시오. 그런 다음 Aalders는 성서의 신성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오는 것은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그 반대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서의 신성한 진리에 대한 확신은 예언의 성취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서도 종말론적 관점은 변증적 관점과 상당히 팽팽하다. 그는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확실성은 외적인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에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언의 성취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서 존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신자가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도 그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이르고 믿은 다음 예언을 본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이제 예언을 보고 거의 또는 전혀 가치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예언의 성취가 낮과 같이 분명하므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확실히 합법적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은: 불신자에게도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예언의 성취가 이차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신성한 기원을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Aalders는 따라서 그것이 그의 입장의 핵심인 내적 원칙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 역사 의 열매입니다 . 기독교 진리의 확실성에 대한 최종 근거는 성령의 증거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변증학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데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주관적인 관점으로 물러나 비기독교적 세계관이 반대로, 또한 어떠한 증거 근거로도 자신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기독교적 입장이 그러하듯이 주관적인 측면에서 자체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의 변증적 가치"

에 대한 그의 견해의 핵심입니다. 그의 관점에서 당신은 성경과 경전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관적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뒤집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도 주관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의 큰 주제인 변증론에 대한 전제적 접근과 증거적 접근의 차이를 만났다는 점에서 저는 생각합니다.

4. Machen's Comments "Christianity and Culture" 출판물에서 JG Machen의 단락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문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achen의 페이지 하단에 밑줄이 그어진 진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능력인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는 "그것은 모든 준비 부족을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의 부재는 최선의 준비도 쓸모없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 그어진 진술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조건들… 지적인 반대를 제거하는 것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 아니오 , 전환은 단순히 인수에 의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심경의 변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즉각적인 행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진술을 주목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은 재생 능력을 즉시 행사하심으로써 모든 지적 장애를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보통 그분은 인간 마음의 특정한 조건과 관련하여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마음은 성경의 진실성과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주장이 무엇이든 보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생각에 의해 마음과 공상이 완전히 지배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준비하지 않고 왕국으로 데려오지 않습니다. "

Francis Schaeffer는 종종 사람들을 전도 전 전도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질문을 다루고, 성경이나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에 대한 반대에 답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것이 Machen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귀하의 인용 페이지 32-33에 있는 Machen의 또 다른 에세이를 나열했습니다. 그는 그 토론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이 단락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설교단 위에 펼쳐져 있는 책의 권위에 대해 말합니다. 그 책의 말씀이 설명될

때 듣는 사람은 마음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망토가 벗겨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이상한 책에서 주권의 또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책을 설명하는 설교자는 왕의 대사이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은 더 이상 숙고하거나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책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그의 것입니다. '"

그런 다음 메이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다른 인용문에서 그가 말한 것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오류로 가득 차 있고, 나는 그러한 고려 사항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에게 '당신의 고려 사항이 잘못되었으며,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선의의 양심으로 내 신념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는 그에게 '당신이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충분히 사실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는 무관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에게 '당신의 생각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의 확신과 상반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나의 주장에도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마지막 태도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상반된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고수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확신과 반대되는 고려 사항의 진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온 영혼을 다해 기독교 변증의 필요성,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성적 변호의 필요성, 특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독교적 확신에 대한 이성적 변호의 필요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의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 학생회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다음 문단 중간에서) "당신이 그 사람과 논쟁을 그치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마 전에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 친구들이 제가 조금도 감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을 때 잘 아시죠. 물론 *단순히* 논쟁으로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분명합니다. 거듭남에는 하나님의 영의 신비한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 모든 주장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논증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논거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증거와 상관없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의 눈에서 안개를 제거하고 증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성적인 변호를 믿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즉각적으로 유용합니다 … 그러나 그것의 주된 용도는 다소 다른 종류입니다. 그것의 주된 용도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격렬한 반대자들이 아니라 진리를 찾고 있고 사방에서 들리는 적대적인 목소리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Machen의 의견이 있습니다.

5. 믿음과 이성 - 베드로전서 3:15 -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 유인물에 대한 다음 설명은 마음을 여는 것은 성령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논증하고 변호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단락에는 두 개의 다른 문서가 참조되어 있습니다. 먼저 AJ Neuhaus, *First Things* 의 "Why We Can Get Together". 인용문의 33 페이지로 이동하십시오. 그는 이 기사에서 믿음과 이성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 이성, 담론 사이의 연결에 대해 생각할 때 성 어거스틴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의 경건하고 설교적인 글에서 어거스틴이 신앙을 위해 이성을 희생하는 사람인 신앙주의자임을 보여주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단편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내부 원칙이라고 말하는 Aalders 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거나 믿지 않습니다 . 증거는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 어거스틴이 신앙을 위해 이성을 희생하는 신앙주의자임을 암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대한 오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그것을 참조하십시오. 그는 알기 위해 믿었다.

“어거스틴은 믿음이 합당한 이유와 믿음 없는 이성이 불완전한 이유를 매우 정교하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매력적인 에세이인 *믿음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 제목 자체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는 어거스틴의 가정을 반영합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이 이해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믿지 않는 대담자에게 믿음에 합당한 이유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일상생활, 과학, 우정, 종교적 문제에서 믿음이 이해에 필요하고 왜 믿음이 그 자체로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지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는 공통된 선험적 견해를 공유한 어거스틴과 그의

대담자는 분명 *합니다* . 어거스틴은 ' 믿기 위해서는 내 말을 이해해야 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고 말합니다. 엡담 길슨(Eptham Gillson)이 쓴 것처럼...'[어거스틴에서] 신앙의 가능성 자체는 이성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이성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 이성과 신앙의 관계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교리는 이성에 의한 신앙 준비, 신앙 행위, 신앙의 내용 이해의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 먼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 고 가장 잘 말했습니다. 믿는 모든 것은 생각이 선행된 후에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후에 신앙주의라고 불리게 될 것에 대해 확고한 반대자였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독단적이라는 주장 , 즉 합리적인 것에 대한

선험적 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이에 호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어거스틴이나 그 문제에 대해 기독교 사상의 위대한 전통의 주류에서

지지를 찾지 못합니다." 6. 역사적으로 Amerstadam - 전제; 프린스턴 - 증거주의자

그래서 Neuhaus의 기사에서 작은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개요에 언급된 다음 기사는 Donald Fuller와 Richard Gardiner가 쓴 "19세기 후반 프린스턴과 암스테르담의 개혁신학: 재평가"라는 상당히 긴 기사입니다. 그것은 1995년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에서 출판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Princeton과 같은 곳에서 생성된 사상 학파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증학에 관한 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생성된 사고 학파는 전제론적 변증론이었고 프린스턴 학파는 증거론자였습니다.

다소 긴 글입니다. 34페이지에서 시작하여 37페이지에 이르는 인용문에서 상당한 양을 발췌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살펴보고 싶지는 않지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복잡해 질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7페이지 를 넘기면 풀러와 가디너가 말한 마지막 두 문단을 *살펴* 보겠습니다 . 지식이 불완전하다면 믿음과 이성에 대한 이러한 *좌표* 개념은 아우구스티누스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네이하우스가 말했듯이 "19세기 실증주의와 매우 상충되며," 계몽주의적 사고 방식과 -거듭남이 정말 중요합니다.따라서 세속적 지적 관점을 가진

기독교인의 참여에 대한 워필드의 비전은 카이퍼의 후퇴주의적 지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입장, 즉 내부 원칙으로 후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워필드는 '그러면 오늘날의 조사에 맞서 용기 있는 태도를 기르자. 아무도 우리보다 그들에 대해 더 열심해서는 안 된다. 모든 분야에서 진리를 더 빨리 분별하고, 진리를 더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진리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더 충성스럽게 따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연구를 최대한 추진하고, 모든 과학의 지도자가 되고, 비판의 맥락에 서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 구속주에 대한 믿음의 진리를 가장 먼저 발견하도록 교회의 저주는 교회에 대한 그녀의 무관심이었습니다. 진리...그녀는 진리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 그러나 그녀는 두려워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는 이미 무지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모든 진리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속합니다. 계승." 그래서, 그것들은 "예언 성취에 변증적인 가치가 있습니까?"라는 더 큰 질문에 대한 몇 가지 설명입니다. 그것들은 취한 입장 중 일부입니다.

B. 성경의 계시적 주장

B. 5쪽에 "성경의 계시적 주장" 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생각이나 성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인간 역사에 관한 것이며, 성경의 예언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 역사의 광범위한 선을 그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고유한 주장은 확인 및 테스트를 요구하며 확실히 열려 있습니다. 성경을 믿든 안 믿든 성경의 역사적 진술(예측적이든 비예측적이든)은 상당 부분 검증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에 대한 계시된 계획의 많은 부분이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서 실현되었음을 가리킨다. 예언과 성취 사이의 연결에서, 특히 구약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결에서 분명히 볼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예언/성취 구조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 예언/성취 구조의 존재는 성경적 계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진실성을 가리킨다.

이 예언/성취 구조는 종교적 또는 정신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이 없습니다. 주관적이거나 내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신에 대한 종교적 헌신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성경적 계시의 신의 실재와 진실성을 가리키는 인식 가능한 실체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본성상 종교적 주관주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즉, 예언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것이 성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검증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밖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적과 예언과 성취의 일관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성경 자체를 취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리십니까?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고 진술이 분명한 재앙을 겪으십시오. “이 일을 행함은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은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 말하고 나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징과 예언과 성취의 일관성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 실존적 의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된 믿음의 필연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의 능력과 존재하심으로 나타내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거기에 객관적인 계시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계시는 개인이 성경 계시의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킬 때 성령께서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응답과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내적 계시와 외적 계시로 불릴 수 있습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객관적인 예언이

존재하고 식별 가능한 특성인 외부 계시로 인식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Aalders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내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예, 그 내적 원리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안에서 거듭나고 마음을 여는 성령입니다. 진리 없이는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적 원칙이나 외적 계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신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표적과 기사, 예언/성취를 통해 자신을 알리신 방법입니다 .

다. 예언과 성취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C., "예언과 성취"로 인도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독특하고 놀라운 형태의 신성한 계시를 접하게 됩니다 . 이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실재를 객관적이고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구성 요소를 수반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와 신의 현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증인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 목격자가 볼 수 있고 목격했습니다.

2. 하나님은 대언자 선지자를 통하여 미래 역사의 계획을 알려 주신다.

3. 미래 역사를 위한 이 계획은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예언한 대로 성취됩니다.

첫 번째 요소인 표적, 기사, 신의 현현은 야훼가 자신을 계시한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에 대한 감각적 제시임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두 구성 요소는 그 주장의 증거, 즉 예언과 성취, 계획과 실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신성한 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단순히 믿음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종교적 계시"와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함마드가 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신성한 계시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근거하여 믿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미리 예고된 계획에 따른 역사의 진행과 외적 징표와 연결된 계시에 근거합니다. 개요에서 나는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구분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적과 기사는 그것을 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증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출애굽 때부터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행하신 일과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한 보고를 읽는 것뿐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나는 구약성경이 신의 존재에 대한 신화적 또는 형이상학적 주장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 그것은 신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1. 선지자의 자기 인증 n 다음 단락.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말씀을 확증하고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백성에게 가시화하기 위해 주신 표적은 계시와 구속의 역사적 진보와 관련하여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인증 목적에 기여했습니다.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는 그러한 표적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계시와 구속의 진보에 대한 보스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주관적인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계시는 실제로 구속의 해석이며 계시는 그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나 구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를 때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징후가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호는 원래 기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직접적인 인증 목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예언과 성취 사이의 연결은 성경적 계시의 하나님의 존재와 진실성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다음 세대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방식으로 계속 작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즉, 표적과 기사는 주어진 시간에 작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읽습니다. 예언과 성취는 그 예언/성취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계속 기능합니다. 예언이 특정 시점과 시간에 주어졌고 수세기 후까지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러한 종류의 예언에 대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명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2. 블룸, 고, 뉴먼: 검증 가능한 기적

JA Bloom, HG Gaugh, 수년 동안 이곳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한 RC Newman은 성취된 예언은 보고된 기적이라기보다는 접근 가능한 종류의 기적, 시험 가능한 기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성취된 예언은 보고된 기적이라기보다 접근 가능한 기적, 시험 가능한 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의 특성은 일어난 일에 대한

관찰이나 해석과 같은 보고된 기적의 어려움을 우회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언은 개인적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서의 유신론적 세계관에 공감하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성취를 종종 시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근거로 믿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이 야훼가 어떤 분인지 객관적인 사실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집트에서 보내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그런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말은 그에게 공허하거나 공허하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명백히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것들에 고의적으로 등을 돌릴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무오한 많은 것을 주셨고, NIV는 그의 존재와 권능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사도행전 1장의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할 때 우리는 그 이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그의 백성에게 보여 주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 결론에 언급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언과 성취는 검증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것이며 개인 외부에 있는 객관적인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류의 구속자로서 성경과 그리스도의 진리 주장을 가리키는 변증적인 의미에서 정당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결론을 끝까지 읽지 않을 것입니다 .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숫자 X 입니다.

XI. 오바댜

강의 개요의 6 페이지 에 "선지서 조사" 과정의 새로운 섹션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과정에서 호세아, 오바댜, 요엘, 아모스의 소선지자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1. 서론 Point 1은 "서론" 입니다. 따라서 오바댜로 가기 전에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언서의 분류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유대 전통에는 이전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은 오늘날 우리의 전통에서 일반적으로 역사책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후기 선지자들은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당신은 제가 확신하는 분류인 대선지자와 소선지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메이저와 마이너라는 용어는 중요성이나 중요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더 큰 선지자들이다. 소선지자는 12명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록을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선지서 목록의 배열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Bullock에서 읽었고 실제로 Bullock이 넣은 것과는 다른 순서로 읽었으며 그 이유는 단순히 Bullock이 일부 선지자와 데이트하는 것이 내가 그들과 데이트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2. 소선지서의 순서 그러나 왜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소선지서가 현재 나타나는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 영어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선지서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가 처음 4명으로, 그 다음에는 요나와 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에 가면 처음 6명은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댜, 요나의 순서입니다. 상당히 다른 순서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져온 것이고 칠십인역은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목록을 보면 책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각 목록에 대해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꼴찌이고 모두 포로기

이후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책에는 연대기적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순서대로 호세아 다음에 위치한다. 호세아, 아모스 오바댜. 그러나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먼저였다. 그래서 당신은 그 질문을 가지고 있고, 나는 아무도 칠십인역이나 히브리어 성경의 책들의 순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선지자와 데이트하기

우리는 Obadiah와 Joel과 데이트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둘 다 데이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던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을 앗수르 시대, 신바빌로니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로 나누면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Bullock에서 읽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앗수르 시대에는 9명의 선지자가 있고, 바벨론 시대에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바냐, 하박국이 있고 페르시아 시대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의 처음 네 권의 책을 살펴보는 일반적인 설명만 있습니다.

A. 오바댜 오바댜에게 갑시다. 나는 그 유인물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로마 숫자 II 아래의 A는 "오바댜의 날짜와 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오바댜가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인물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날짜의 차이는 자유주의적 또는 보수적 관점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 그 범위는 가장 빠른 BC 840 년경부터 BC 586년경 예루살렘 멸망 직전까지, 그리고 일부는 450 년경까지 다양합니다. 광범위한 결론이다.

연대 질문의 핵심에는 10절과 11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약탈에 대한 식별이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된 책인 오바댜를 보면 그것이 에돔 사람들에 대한 신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에게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오바댜는 “네 형 야곱에게 강포한 연고로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재산을 빼앗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 예루살렘을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신은 그들 중 하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루살렘의 약탈과 일종의 관련이 있는 에돔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재물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거기에서 핵심이 10장과 11장에서 그리고 아마도 14장에서 에돔 사람들에 의한 예루살렘의 약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해석의 문제가 되고 그것은 날짜와 관련이 있습니다. 12-14절은 미래에 있을 비슷한 종류의 예루살렘 약탈에 대해 말하는가, 아니면 10절과 11절의 연속인가?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10절과 11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약탈을 동일시하기 위해 논쟁되어 온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3개를 나열했습니다.

1.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연합에 의한 유다 여호람 통치의 약탈

A.는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연합군에 의한 유다의 여호람 통치 기간의 약탈"이다. 역대하 21장 8절을 보면 여호람 시대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여 자기 왕을 세웠더라" 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10절, "에돔이 오늘날까지 유다를 배반하였느니라 . " 구스 사람들이 유다를 쳐서 침노하고 왕궁에 있는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노략하고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에돔 사람들의 반역과 관련된 예루살렘의 약탈에 대한 우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20에는 여호람에 대한 에돔 사람들의 반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에돔 사람들이 그 침략에 협력하고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리품에서. 그것이 오바댜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불러일으킨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 견해입니다.

2. BC 586년에 바벨론의 예루살렘 약탈

두 번째 견해는 오바댜서 10절과 11절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탈한 것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입니다. . 에스겔 35장 5절(이것은 에돔에 대한 예언이니 곧 심판의 예언이라) "네가 옛적부터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환난 때에 칼의 때 곧 그들의 형벌의 때에 인도하였은즉 그 절정," (분명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가 눈에 띈다), " 그러므로 주권자인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살아 있는 한 분명히 내가 유혈 사태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것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네가 유혈을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유혈이 너를 좇으리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586년에 에돔인들이 예루살렘 약탈에 어느 정도 가담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그들이 이전에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586년 날짜에 대한 반대는 전체 인구의 추방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도시와 성전의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10절에서 느부갓네살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덮였다."

그런 다음 2페이지 상단에서 10-11과 12-14가 두 가지 기준점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과 오바댜 1-6장과의 관계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것을

데이트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9:1-7과 오바댜 1-6 사이에는 언어에 암시가 있습니다. 질문은: 어떤 선지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이 원본인지 또는 둘 다 일부 알려지지 않은 예언의 초기 출처를 반영하는지에 따라 상황이 나뉩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언어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바댜는 예레미야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예레미야가 오바댜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둘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연애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JB 페인(Obadiah)의 10-11절은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J. Barton Payne의 세 번째 제안은 오바댜서 10-11절이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에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하 28:16-18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들을 데려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산기슭에서 내려와 유다에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그 곳]을 점령하고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일부 이름입니다. 기원전 586년 이후, 즉 바벨론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약탈한 이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RK 해리슨은 기원전 450년경으로 추정

이것이 데이트에 대한 질문이고,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질문은 10-11절과 12-14절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더 발생합니다. 아직 몇 분 동안 그 토론을 미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10-11장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어떤 약탈이 데이트에 대한 당신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4. 오바댜의 저자

저자는 "여호와의 종"을 의미하는 오바댜입니다. 그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의 예언이며 오바댜서 자체에는 이 개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다른 여러 오바댜가 언급되어 있지만 아합 시대와 관련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나. 오바댜서의 주제

B.는 "책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그것을 약간 관련시켰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나는 이미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에서와

에돔의 관계를 보십시오. 창세기 36장 8절은 에서가 사해 바로 남쪽, 산간 지방이 있는 동쪽, 지구대 분지 동쪽으로 홍해의 사해와 아카바 만. 주요 도시는 Bozrah와 "개인 바위"를 의미하는 아마도 Sela였을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에돔 영토의 유명한 고고학 유적지인 Petra 도시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바 만 끝자락에 있는 에시온게벨에서부터 왕의 대로라 불리는 길이 있어 북쪽으로 에돔을 지나는 길이라. 그 길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자 했던 길인데, 그 당시를 기억한다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에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삭의 축복 등을 위해 두 형제와 투쟁이 있었던 모든 상황을 기억한다면 야곱/에서 논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인용문 38페이지를 보십시오. Keil은 이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언급을 했으며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잘못이나 폭력은 형제에게 저질러졌을 때 더욱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였기 때문에 에돔이 유다와 맺은 형제적 관계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명확하게 정의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형제라는 의식은 에돔 사람들이 억압받는 유다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제공하도록 재촉했어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형제

민족의 불행을 조소하고 비열하게 즐겼을 뿐만 아니라 적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형제 민족의 불행을 더욱 증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돔의 이러한 적대적 행위는 야곱에 대한 에서의 증오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되었으며 모세 시대를 전후하여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는 형제애로 나타났습니다. 땅을 통해 평화로운 방식.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에돔에 대해 우호적이고 형제 같은 태도를 유지하라는 율법의 명령을 받습니다." 신명기 2:4-5과 23:7에서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야곱/에서 논쟁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논쟁은 지금이...840...586년 등등 어떤 날짜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인 C로 선택하겠습니다.

EC를 위해 Samuel Winslow가 필사
러프 편집: Ted Hildebrandt
Katie Ells의 최종 편집
Ted Hildebrandt 의 재연설